

## 2020년 2월 선교소식 - 2020년 2월 선교소식

중국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하며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만병의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특히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 선교회 식구들께서는 평안들 하셨는지요? 이곳 탕가 신학교와 리빙 스톤 학교 모든 식구들 평안하며, 저희들 역시 평안합니다. 다만 1년 중 가장 무더운 계절, 체감온도 40도를 웃도는 습한 열기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2월 선교소식이 늦었습니다.그만 깜박 했지요. 죄송합니다.

### I. 탕가신학교 소식

현지교단으로 이양한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아직 이양에 관한 행사는 하지 않았지만, 순조롭게 어려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일 전 이양받은 교단 관계자들이 저희를 방문하였고 신학교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으니 염려하지 말라며 우리 선교회에 고마운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희 부부 또한 최선을 다하여 뒤에서 협력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이양에 관한 행사는 7월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 금요일 (2월 21일) 신학교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신학생이 총 87명으로 운동장이 좁아진 느낌이었지만 모두 즐겁고 신나는 체육대회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2학년이 우승컵을 가져 갔습니다.

### II.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 소식.

#### 1. 제 3회 과학캠프 소식

2월 초, 대전 충남대학교 내 백마 사회공헌센터(센터장 권재열 박사) 주관으로 열렸던 과학 캠프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리빙 스톤에서만 캠프를 하지 않고 이웃학교인 무혜자 고등학교에서도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캠프를 통해 만남의 교제를 나누었을 뿐아니라 여러 가지 혜택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서 먼저 배운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언어도 훌륭하여 소통의 기쁨도 있었고, 캠프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 온 물품들도 공항 세관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는 은혜가 있어 또 감사했습니다. 기증하신 물품들 (예: 테블렛 20, 코딩키트 32)은 '(주)디앤에이보이' 회사이름으로 그리고 그 회사의 세 분 이사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후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 2. 고등학교 소식

앞으로 2개월 후면 고등학교 졸업반들은 대학입시를 위한 국가시험을 보게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탄자니아는 5월 말경에 고등학교 학사일정이 모두 끝납니다.

## 3. 리빙 스톤 학생들 한국견학

6월 초 약 2주의 계획으로 한국 견학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준비가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수입니다. 늦어도 이 달 안에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 III. 건축 소식.

### 1) 선교센터.

리빙 스톤 학교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교센터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창틀과 2층 계단 공사가 끝나면 사무실 집기를 놓게됩니다.

### 2) 교회건축.

서울 신성장로교회와 한국 동부아프리카 선교회 권사님 한 분의 헌금으로 2곳에 교회 건축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입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5월 안에 마무리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일 전에 한종태 목사님으로부터 또 한 곳의 교회 건축지를 알아봐달라는 반가운 소식을 받았습니다. 꼭 필요한 곳으로 잘 선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 일을 알수 없지만 사역하는 동안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가 많이 지어지길 늘 소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IV.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한국의 우한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안정되길.
2. 학생들 한국견학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3. 선교센터 마무리와 건축중인 2 곳 교회를 위하여.
4. 박선교사 오른쪽 무릎 수술을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선교회 모든 식구들과 섬기시는 각 교회들 위에 넘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20 년 3 월 1 일

박윤석 김은래 선교사 드림.